

## OD1 대구광역시 근린공원의 휴양기능분석

김범수\*, 허현주  
건국대학교 산림과학과

### 1. 서 론

도시의 기간공원인 근린공원은 일정한 규모의 집단화된 면적을 가지며 도시민의 휴양 활동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제도상에서 볼 때 도시 근린공원의 설치 기준에 따른 공원 면적은 도시 전체에 대한 산술적 확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도시공원법, 2000; 丸田頼一, 1983). 그러나 공원 배치는 파리 대개조 계획에서 나타나듯이 공원이 도시민의 일상적 내지는 주말의 휴식처로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원을 규모와 토지 이용에 따라 도시 지역에 균등하게 배치함이 바람직하다(伊藤精吾, 199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도시 중 공원녹지 정책을 통해 도시의 녹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도시인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휴양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근린공원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 제도적인 배치와 기능적인 배치를 비교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 2. 분석 방법

근린공원의 휴양기능에 대해 우리나라의 공원법 상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근린공원의 휴양기능은 일상생활권인 시가화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근린권과 도보권 근린공원만을 대상으로 유형별 근린공원의 유치권을 토지이용상황과 연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시가화구역 상에서의 휴양기능을 분석하였다.

근린권과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도 CAD 파일을 이용하여 시가화구역의 토지 이용도를 작성한 후 이 도면과 근린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 위치도를 오버랩하여 분석용지도를 작성하고 면적 산출은 2mm 점격자판을 이용하여 점유율을 산출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시가화구역과 같은 일상생활권에 있어서의 근린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의 휴양적 기능을 토지이용상황과 오버랩 시켜 본 결과 이들 공원은 주로 시가화구역의 외곽부에 편중되어 존재하고 있고 중심부에는 비율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심의 상업과 주거지역은 이들 공원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구광역시에 있어서 일상 생활권에서의 근린공원의 분포는 서류상의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전체 시가화구역의 1인당 3m<sup>2</sup>와 도시계획구역에서의 1인당 6m<sup>2</sup>의 기준 면

적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권을 기초로 한 CAD도면의 시각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 각 자치구 내에 있어서 그리고 토지이용 상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시가화구역내의 근린권 근린공원의 휴양기능 유치권의 점유 비율은 12.6%로 매우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역의 경우 14.7%에 지나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8% 전후로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시가화구역내의 도보권 근린공원의 휴양기능 유치권의 점유 비율은 34.0%에 불과한 낮은 정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역은 이용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업지역이 48.0%로 가장 높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31% 전후로 나와 있다. 즉, 설치 중요도가 높은 주거권이 공업지역에 비해 유치권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도보권 근린공원의 배치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시가화구역내의 근린권·도보권 근린공원의 휴양기능 유치권의 점유 비율은 46.6%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지역은 이용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토지이용에 따른 근린권과 도보권 그린공원을 합친 점유비율을 보면 공업지역이 55.4%로 가장 높고 이어서 주거지역이 46.2%, 상업지역이 40.7%를 나타내었다.

#### 4. 결 론

법정 기준으로는 대구광역시의 공원녹지가 도시계획구역 및 시가화구역내의 거주자 1명당 기준 면적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휴양 기능적으로 보았을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효율적인 휴양 기능적 배치가 되고 있지 않아 휴양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토지이용별 근린공원의 휴양기능의 분포는 아직 상당 수준 미흡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타 토지 이용지역에 비해 근린공원의 요구도가 높은 주거지역의 근린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의 점유 비율이 공업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각적인 분포 상에서도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휴양기능 요구도가 높은 인구 밀집 지역인 대구광역시의 시가화구역내의 근린공원 분포는 전체 지역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휴양유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어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녹지의 휴양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역적인 편중 현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의 시가화 구역 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분석결과 휴양기능이 결여된 지역은 주변의 어린이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등 대체 기능공간을 확보하거나 하천이 존재하는 경우는 하천변 부지를 활용하여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